

韓語子音/ㄷ/的特質與發音教育

鄭潤道*

中文摘要

在台灣的大學韓文系中指導非韓文母語者的韓語發音教學中，教師的基本任務是依韓語的音韻特質，讓學生能正確區別。

在此以韓語中歸為子音的/ㄷ/為主，依其造音位置及方式來辨別發音屬性，確認 C1+V+C2 音節結構中成現在初聲(C1)或終聲(C2)時的不同，分析/ㄷ/[1]所具有的[+子音性，+舌冠音，+響音性，+持續性，+舌邊音，-音節性]等屬性，在發音上的影響而產生變異的彈舌音[r]和舌側音[l]。

並針對過往台灣的發音教學中，以中文為母語的學生所遇到的學習環境及人為因素，導致發音有誤，如注音/ㄌ/、/ㄱ/或/ㄴ/的代用及介入兒化母音現象等，整理出較合理且有系統的說明。

關鍵詞：韓語發音教育，音韻規則，韓語子音/ㄷ/

*中國文化大學韓國語文學系專任副教授

2011 年 11 月 16 日投稿 2012 年 4 月 10 日通過刊登

Pronunciation Education & Distinctive Feature

of the Korean Consonant /ㄹ/

Chung, Yun Do^{*}

Abstract

In the domain of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as students who specialize in the second language intend to correctly differentiate phonologies, so the instructing teacher shall discriminate the distinctive feature in accordance with the “Phonology” and “Phoneme” exists in the Korean.

We may take the liquid lateral consonant/ㄹ/ in Korean alphabet as an object to discriminate the distinctive feature of phoneme according to its manner and place of articulation and place of articulation, so as to confirm a phonetic value within the first and last tone referred to“(C1)onset and (C2)coda”, C1+V+C2 constitutes a syllable structure. We also analyze the allophone flap [ɾ] and later [ɭ] affected by the pronouncing properties such as [+consonantal, +coronal, +sonorant, +continuant, +lateral,-syllabic]exists in /ㄹ/.

Based on the fact that the college student in Taiwan with Chinese as the first language often make a mistake or an error in pronunciation due to the limited of learning environment and human factors, for instance, using the surrogate of R-colored vowel /ㄹ/ and alveolar lateral approximant /ㄹ/, or voiced retroflex fricative/ ㄹ/, amore reasonable and systematic specification focusing on courses of the pronunciation is sorted out.

Key words: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Phonological Rule, Korean consonant /ㄹ/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Culture University

한국어 자음/ㄹ/의 자질과 발음 교육

정윤도*

논문요약

대학에서 외국인 전공자들을 위한 한국어 자모 발음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기본 역할은 한국어가 갖는 음운의 변별적 자질에 의거해 그 음가를 올바르게 구별해 정립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어 자모 중 치경유성설측음이라 불리는 닿소리 /ㄹ/음을 대상으로, 한국어가 갖는 음절 구조의 특성과 더불어 자음/ㄹ/이 초성에서는 탄설음 [r]과 종성에서의 설측음 [l]으로써 조음 환경에 따라 생성되는 변이음의 독특한 자질을 통해, 음운 환경에 따라 달리하는 그 음가를 확인해 본다. 즉 /ㄹ/[l]이 지닌 [+자음성, +설정성, +공명성, +지속성, +설측성, -음절성] 등의 자질들이 발음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 발음교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제시하는 질문과 오류 발생의 원인들에 대한 설명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리있고 쉽게 정리해 보고자 시도한다.

또한 실질적인 교수법 모색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자음/ㄹ/의 발음 오류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중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대만 학습자들이 처한 조음적, 교육적 환경에 입각한 오류의 예시 및 올바른 용례를 제시하여 그 비교와 대비를 통해, 한국어 자음/ㄹ/은 유사하다 여기는 중국어 주음 “/ㄌ(l)/[l]、/ㄹ(r)/[z]、/ㄹ(er)/[ʌ]”등과는 다른 별개 음운의 음가임을 일깨워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키워드: 한국어 발음교육, 음운규칙, 한국어 자음/ㄹ/

*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전임부교수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한국인 교사로 1995 년부터 본과 1 학년 기초 발음 과정인 「한국어 음운학」 과목을 담당해 옴.

한국어 자음/ㄹ/의 자질과 발음 교육

鄭潤道

1. 서론

1.1 연구 동기 및 필요성

오늘날 대만을 비롯한 해외 각지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 목표는 단순히 외국어로서의 어문 능력 배양 위주라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 학 인재 배양 정책에 부응해 복합적 인재 양성¹으로 전환해 가는 추세라는 견해에 동감한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 문학과² 교과과정만 보더라도, 이런 추이에 따라 발음 교육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 기존 입문 기초 과정으로써 실시되던 자모 발음 위주에서 벗어나, 발음과 관련된 응용 과목도 중시되고 있다. 특히 전공자를 위해서는 학부부터 대학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래 좋은 한국어 발음이 대만인 학습자의 전반적인 한국어 실무 능력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내용과 범위는 읽기와 말하기 등 기본 표현 능력과 관련된 과목뿐만이 아니라, 실무적인 통역 및 한국어교사 양성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수법 등의 어문 응용과정 전반에 걸친다. 필자도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하다 여기어 한국어 발음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사로서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려 한다.

1.2 연구 내용과 과제

필자는 본고에서 그간 대만에서의 교직 생활에서 누적된 일련의 경험을 토대로, 대만인 학습자들 대부분이 그 음가에서 혼동하고, 오류 발생도 빈번한 자음/ㄹ/의 발음과 관련해 보다 효율성 있는 교수법의 모색을 강구해 본다.

그리하여 필자의 교수 대상인 대만인 학습자(문화대학교 한국어과)들을 위주로 나타나는 자음/ㄹ/과 관련된 발음상의 문제점을 과제로 삼았다. 동시 이들이 전공자임을 중시하여 그 학문적 이론 근거인 음운론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리있게 정리하여, 보다 과학적인 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발음 교수법을 모색하여 본다. 이는 또한 장래 현지인 발음 교사 배양에 따른

¹ 김병운(金秉運, 2009), 中國語圈 學習者를 위한 韓國語教育研究, P34, 한국문화사

² 관련 내용은, <http://www2.pccu.edu.tw/CRGAKL/> 中國文化大學韓國語文學系暨研究所 웹사이트를 참고 바람.

교수법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함에도 그 목적과 동기를 둔다.

본문의 내용은, 우선 대만 학습자의 자음/ㄹ/ 발음 오류의 주요인과 관련해, 한국어 발음 교육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초 이론인 음운론 교육의 부실로 인해 학습자들이 한국어 자음/ㄹ/이 갖는 변별적 자질과 그 자질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음운 현상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과도기적 현상으로써 과제를 주시하였다. 아울러 현행 교육 환경에 나타나 있는 제반 문제들도 지적해 그 개선을 촉구해본다.

또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을 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본다. 이에 음운론에 이론 근거를 둔 실질적인 교수법 모색에 있어서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조음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탄설음 /ㄹ/[r]과 설측음/ㄹ/[l]적 변이음의 식별과 조음 방법의 터득을 위한 발음 교습의 실행과 동시, 특별히 대만 학습자가 처한 모국어인 중국어의 조음적, 교육적 환경에 입각하여 대비와 비교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 및 용례를 제시하여, 한국어 자음/ㄹ/은 유사하다 여기는 중국어 주음부호 “/ㄌ(l)/ [l], /ㄹ(r)/ [z], /ㄹ(er)/ [æ]” 등과는 다른 별개 음운임을 일깨워 올바른 음가를 새로이 정립해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3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 방법

전반적인 한국어 음운론에 대한 연구는 김승곤(1983,1985), 김차균(1993,1990), 이병건(1976), 이송녕(1978), 이현복(1989), 이호영(1996), 신지영(2004), 허웅(1985,1970), 김영송(1987) 등에 의해 다분히 심도있게 이루어져 있으며, 자음/ㄹ/과 관련한 한국어 음운의 변별적 자질과 음운 현상 내용도 충실히 정리되어 참고에 유용하였다. 반해 한국어 교육 일반에 대한 연구는 박영목, 민현식, 김종철(2008), 남성우 외(2006), 석주연(2008), 김병운(2009), 김영만(2005) 등 선진들에 의해 나름대로 정리가 진행되어 있으나, 특별히 중국어권 대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련해 중국어 주음부호와 한국어 음운의 자질 등에 관한 비교 연구 부분은 아직 깊게 연구되지 않아 참고에 미흡한 상태이다.

연구 방법은 분류법과 비교법을 근간으로 분석법 및 귀납법에 의거해 고찰해 본다.

2 대만인 학습자의 자음/ㄹ/발음 오류 현상

2.1 발음 오류 현상 조성의 요인

특히 음소문자를 사용하는 한글에 있어서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음운인 만큼 그 자모 하나만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 국어 교육을 통해 표준어규정에 근거한 올바른 표기와 표준 발음을 강조해 준수토록 요청하여 습득하

고 있는 것이다.³ 그러므로 비록 외국인 학습자일지라도 대학 한국어 전공자인 만큼 표준 발음 범위를 벗어난 오류는 지적되어 개선되도록 요청돼야겠다. 다만 학습자들의 /ㄹ/ 발음 오류 발생과 관련해선, 조음적, 환경적인 두 방향에서 살펴 그 원인과 상황을 분석해 귀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자의 일시적 실수
2. 모국어인 중국어 영향의 과도기적 산물
 - 1) 중국어에 없는 음운(음가)
 - 2) 중국어에 없는 음운과의 음절 배합에 대한 부적응
3. 학습과정 부실의 진정한 오류
 - 1) 한국어 음운에 대한 인지 부족
 - 2) 발음 시범자인 교사의 시범 오류
 - 3) 대체 음운 사용 방임 등 학습 지도 관리의 간과

2.2 조음적 요인

이하의 상기 지적에 부연하여, 다만 학습자들이 자음/ㄹ/과 관련해 발음 오류를 일으키는 조음적 측면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방지와 개선을 위한 건의를 시도해 본다.

2.2.1 자음/ㄹ/은 중국어에 없는 별개의 음운

한국어 자음/ㄹ/은 중국어에는 없는 별개의 다른 음운이다. 굳이 중국어에서 유사한 음가 음운을 찾아 비교해 보면, 어두초성에 쓰이는 /ㄹ/은 중국어 주음 21 개 자음(聲母⁴) 중 “치경설측접근음 /ㄹ(l)/[l]⁵와 권설마찰음 /ㄹ(r)/[ʐ]⁶” 두 자음이거나 어말종성에 쓰이는 /ㄹ/은 16 개 운모(韻母) 중의 단운모(單韻母)에 속하는 “평순권설모음 /ㄹ(er)/[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음운들은 그 자모(字母)로써의 구별과 명칭에서도 엇볼 수 있듯이 한국어 자음/ㄹ/과는 다른 조음 위치와 방법에서 비롯된 다른 자질을 형성하고 있고, 또한 한국어 자음/ㄹ/과는 음절 형성상의 역할에서

³ 1988 년 한국 문교부고시 「표준발음법」-표준 한국어 관련 정의에서, 교양있는 사람이 쓰는 말이라 함은 학교 의무 교육 과정을 통해 올바른 한국어를 두루 익힌 사람들이 쓰는 말과 발음임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⁴ 중국어의 聲音學의 자모분류에 따르면 聲母라 하나 한국어와의 비교 편의를 위해 이하 자음이라 지칭함.

⁵ 중국어 치경 설측 접근음(alveolar lateral approximant) /ㄹ/는, 혀의 앞쪽을 윗잇몸 뒤 중앙에 대어 폐쇄를 만들어, 혀의 양쪽 겨드랑이로 부터 공기를 통하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소리로 어두 초성 자음으로 쓰이며 국제 음성 자모에서는 [l]이라 표기한다.

⁶ 중국어 유성 권설 마찰음(voiced retroflex fricative) /ㄹ/는 치조후면에서 혀 끝을 말아 만드는 마찰음으로써 어두 초성 자음으로 쓰이고 동시 음절의 핵이 되어 단독으로 한 음절을 이루며 한국어 “르”와 유사한 권설음이다. 국제 음성 자모에서는 [ʐ]라고 쓴다.

도 동일하지 않은 서로 다른 음운임을 학습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래 <표 1>을 통해 한국어 자음/ㄹ/과 유사한 중국어 음운 /ㄌ, ㄹ, ㄴ / 등에 관한 자모 분류와 조음 위치 및 방법에서 자음/ㄹ/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보자.

<표 1> 한국어 자음/ㄹ/과 중국어/ㄌ, ㄹ, ㄴ/의 비교

언어	자모분류	유무성음	(조음적)명칭 및 (IPA. 국제음성기호)	예시		
				철자	[발음]	뜻
한국어	자음/ㄹ/	유성음	치경탄설음(ㄹ)	"나라"의 (초성ㄹ)	[nara]	나라
		유성음	치경설측접근음(ㄹ)	"달"의 (종성ㄹ)	[dal]	달
		유성음	경구개설측접근음(ㄹ)	"달리"의 /ㄹㄹ/	[dalli]	다르다
중국어	자음/ㄌ ⁷	유성음	치경설측접근음(l)	老(ㄌㄠˋ)	[lao]	늙다
	자음/ㄹ/	유성음	권설마찰음(z)	肉(ㄹㄡˋ)	[rou]	고기
				日(ㄹㄧˋ)	[ri]	날
	모음/ㄴ ⁸	유성음	평순권설단모음(ㄴ)	二(ㄴㄟˊ)	[er]	둘(2)
		유성음	R-음화모음(兒化母音) ⁹ [ʌ] (유음)	「歌」(歌兒)	[kəʌ]	노래

2.2.2 중국어에 없는 음소배합과 음절결합의 과도기적 부적응 현상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음절을 이루는 음운의 조합이 많이 다르다. 예로, 주음 /ㄹ/처럼 자음 단독으로 한 음절을 이루기도 하고, /ㄴ/[얼]처럼 모음에 속하면서도 한국어에서의 종성음가를 동시 동반하기도 한다. 또 어말 종성 자음 /ㄴ, ㄱ(n)/[n]과 /ㄱ(ng)/[ŋ]의 경우 그것들과 배합해 음절을 이루는 모음의 조합에 제약이 따른다. /ㄴ, ㄱ(n)/[n]은 “/Y(a)/[a] , /ㄷ(e)/[ə] , /ㄴ(i)/[i] , /ㄴ(ü)/[y]” 등 아래에서만 쓰이고, “/ㄱ(ng)/[ŋ]는 /Y(a)/[a] , /ㄷ(e)/[ə] , /ㄴ(i)/[i] , /X(o)/[o]” 등 뒤에서만 한하여 쓰인다.¹⁰ 이에 반해 한국어에서는 모든 자음들이 음절 초성뿐만 아니라 종성에서

⁷ 중국어의 聲音學의 자모 분류에 따르면 “聲母”라 불리나 이하 “자음”이라 지칭한다.

⁸ 중국어의 聲音學의 자모 분류에 따르면 “韻母”라 불리나 이하 “모음”이라 지칭한다.

⁹ 중국어 북경어와 동북어에서 주로 나타나는 R-음화현상의 일종인 “얼화모음현상(兒化母音現象)”은 어휘 단어의 음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두에서 어말 모음에 권설모음 “-兒(ㄴ)[얼/əʌ]” 음이 어우러져 첨가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대체음(輔音)으로 정식 음운(음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주로 어말 모음 「Y[a]、ㄷ[o]、ㄷ[e]、X[wu]」 뒤에 나타나며, 모음 /-ㄴ[i]혹 /ㄴ[yu]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국제음성자모 표기는 [ʌ] (陳春美, 2001 논문)로 표기한다.

다시 받침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한국어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여 반드시 모음과 어우러져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한국어의 독특한 음절 구조 특질로 인해, 대만 학습자들에게는 중국어 모음과의 배합에 없는 기타 한국어 모음과의 조합은 기존의 모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아 생소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중국어에 없는 음절의 음가를 정립해 주는 과정에서는 초음절적 반복 연습을 통해 익숙해지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바로 그 과도기의 부적응 상태에서 학습자가 익숙한 중국어 혹은 영어의 유사 음운으로 대체해 쓰면서 오류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외국인 학습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오류 조성의 대표적 양상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런 경우의 예방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즉 대만 학습자가 자음/ㄹ/과 유사 음가로 여기어 어두초성 자음에서 쓰이는 /ㄴ/을 대체음으로 쓸 경우를 대비해, 중국어에 없는 한국어 모음과의 배합으로 생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및 중국어 사전 색인에 의거해 <표 2-1> 및 <표 3-1>을 도출하여 보았고, 다시 <표 2-2>를 통해 한국어의 용례를 살펴본다.

- 1./ㄴ/의 경우, 중국어에 없는 한국어의 음절 배합에서 이하 **괄호**에 해당하는 한국어 모음들이 있었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ㅓ ㅕ ㅗ ㅛ** ㅓ ㅕ ㅗ ㅠ **ㅡ ㅟ** ㅟ /

- 2./ㅟ/의 경우는 중국어에 없는 한글 모음과의 음절 배합에서는 모음/ㅡ/를 제외하고는 다 해당된다. 그러나 대만 학습자들이 권설음 /ㅟ/와 /ㄹ/의 발음상 차이를 대다수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점과 실제로 중국어의 /ㄴ/음에 없는 모음 /ㅡ/와의 배합에서만 /ㅟ/로 대체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따로 그 용례는 생략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ㅟ /

¹⁰ 이희승감수(1995),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최영애-김용옥 중국어 표기법, 위키백과.

2.2.3 중국어 권설음 개입 현상

/ㄹ/은 음향적인 분류에서는 한국어 자음 중 유일한 유음에 속한다.

그 발음 교수 과정에 있어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대륙과 대만 지역 학습자들의 권설음 개입도 유의해 예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병운교수는, “음을 식별하는 차원보다는 일차적으로 자신들이 모국어를 쓰면서 나타나는 권설음이 한국어에 어떻게 전이되고 들어가는지를 ‘발견’하게 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공감할 수 있는 견해를 밝히며,¹¹ 한국어 발음에서 종종 나타나는 권설음 개입 현상을 주의토록 <표 4>¹²와 같은 예시를 들어 참고토록 하고 있다.

<표 4> 한국어 발음에서 일어나는 권설음의 영향

발음형 단어	/모음/+ 어중초성/ㄹ/ →[ㄹ(ㄴ)]+[ㄹ]	발음형 단어	음절중성/ㄹ/+ /모음/ →[ㄹ(ㄴ)]+[ㄹ]
그리고	[글리고]	달아나다	[달라나다]
사람	[살람]	갈아입다	[갈라입다]
우리	[울리]	가리우다 *	[갈리우다]
보리	[볼리]	돌아서다	[돌라서다]
마르다	[말르다]	들어오다	[들러오다]
드리우다	[들리우다]		

*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나 현실에서 사용하므로 예시에 포함시켰음.

¹¹同註 1, p.66-69 참조.

¹²同註 1, p.67 <표 10> 한국어 발음에서 일어나는 권설음의 영향. 참조. 원 <표 10>에서 사용한 발음형: “ㅇㄹ→ㄹㄹ”은 “모음+ 어중초성/ㄹ/→ [ㄹ(ㄴ)]+[ㄹ]”로, “ㄹㅇ→ㄹㄹ” “음절중성/ㄹ/+ /모음/→[ㄹ(ㄴ)]+[ㄹ]”로 변경했음과, 권설음(ㄴ)이 첨가된 곳은 “ㄹ”로 표기하여 읊졌음을 밝힘.

그리고 교사는 중국어에서 음운/ㄹ/의 두 가지 사용 용례도 이해하여 권설음 개입 양상을 사전에 염두하여야 한다. 하나는 어휘 “儿, 兒, 而, 爾, 二, 貳” 등 글자의 음가로써 발음되는 [ər]은 평순권설음이다. 이를 한국어로 표기하면 [얼]이 되겠는데, 그 음운 단독으로 한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음절성] 자질이 한국어의 닿소리 유음/ㄹ/과 비교해 크게 다르다.

음운/ㄹ/의 또 다른 용례로는 “얼화모음현상(兒化母音現象 혹은 兒化韻現象)”이라 지칭하는 소위 “R-음화현상”의 개입을 들 수 있다. 이는 어휘의 본래 음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적 구두 발음에 있어서 어말 모음 뒤에 권설모음 “-兒(儿)”음이 첨가되며 어우러져 나타나는 일종의 대체음(輔音)이다. 규범적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어와 동북어 등에서 습관적으로 많이 쓰이며 대만 학습자들에게도 종종 나타난다. 주로 체언 어휘 어말모음 /Y[a]、ㄷ[o]、ㄷ[e]、X[wu]/ 뒤에서 나타나고, 모음 /ㅡ/[i]혹 /ㄴ/[yu]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히 한국어 개모음 /ㅏ、ㅑ、ㅓ、ㅕ、ㅡ/ 앞뒤에 연이은 어중 초성/ㄹ/이나 종성에 오는 /ㄹ/ 발음은 각별히 유의를 해야한다.

(1) 가. /ㅏ/+/ㄹ/의 배합

- a.도둑이 달아나다[다라나다O,달라나다X].
- b.새가 날아가다[나라가다O,날라가다X].
- c.손과 발이[바리O,발리X] 그물에[그무레O,그물레X] 얽혔다.
- d.오리알이[아리O,알리X] 달걀[달걀O,다르걀X] 보다 크다.

나. /ㅑ/+/ㄹ/의 배합

- a.얼굴이 더럽다[더럽다O,덜럽다X].
- b.옷걸이에[온꺼리O,온꼴리X] 예쁘게 걸어요[거려요O, 걸러요X].
- c.천천히 걸어서[거려서O,걸려서X] 가세요.
- d.빨래를 널어 [너리O,널리X]요.
- e.새나라의 어린이는[어리니는O,얼리니는X] 일찍 일어납니다
[이러납니다O,일러납니다X].

다. /ㅓ/+/ㄹ/의 배합

- a.전철로[전철로O,전철을로X] 돌아갔다[도라간따O,돌라간따X].
- b.그사람은 머리가[머리가O,떨리가X] 끓었다[고라따O,골라따X].
- c.보리차를[보리차를O,볼리찰를X] 끓여요[끄려요O,끌려요X].
- d.불이[보리O,볼리X] 빨개졌어요[빨개저-O,빨깁절-X].
- e.그일로 끓이[고리O,골리X] 아플거예요[아플-O,알플-X].
- f.북경 오리[오리O,올리X] 구우러[구우러-O,구올러-X] 가요.

라. /ㄷ/+/ㄹ/의 배합

- a. 아기가 울어요[우려요 O, 울려요 X].
- b. 사무실에[사무시레 O, 사무실레 X] 물어봐요[무려-O, 물려-X].
- c. 우리[우리 O, 울리 X] 대만 사람[사람-O, 살람-X] 참 좋아요.
- d. 물이[무리 O, 물리 X] 얼음이[어르미 O, 얼르미 X] 됩니다.
- e. 술을[수를 O, 술를 X] 한 잔 따라 [따라-O, 딸라-X] 주세요.
- f. 제 방울이[방우리 O, 방울리 X] 떨어졌어요[떠러-O, 떨러-X].
- g. 우리[우리 O, 울리 X] 할아버지가[하라버지 O, 할라버지 X]
 물에[무레 O, 물레 X] 빠지셨어요.

마. /ㅡ/+/ㄹ/의 배합

- a. 어서 들어[드러 O, 들러 X] 오세요!
- b. 솔로[솔로] 먼지를 쓸었어요[쓰러써요 O, 쓸러써요 X].
- c. 그리고[그리고 O, 글리고 X] 전화를[전화를 O, 전활를 X] 했어요.

그 조음 방식은 어휘의 어말 모음 발음 후에 연이어 “兒(儿)[ər]”이라 혹은 발음이 끝나기 전에 혀를 말아 흘리듯이 “-兒(儿)[얼/ər]”이라 발음한다. 대만 학습자들이 위의 예시처럼, ‘그리고’를 ‘[글리고]’라고 발음하거나 혹은 ‘달아나다[다라나다]’를 ‘[달라나다]’라고 발음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정확한 발음을 음운 표기식 발음 기호로 제시해 주어 확인토록 한다. 그 실지 조음의 연습에 있어서는 ‘[그 : 리 : 고]’나 ‘[그-리-고]’, ‘[다 : 라-나 : 다]’나 ‘[다-라-나-다]’식으로, [그-]의 [으] 모음과 [다-]의 [아]의 모음으로써 한 음절을 마감해 천천히 초음절식 발음법으로 연습시켜야 권설음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

2.3 기타 발음 오류 요인

그외에도 교육 환경에 있어서의, 교사와 관련하여 필자가 발표한 기타 논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¹³

- 1) 발음 관련 기초 이론 교육의 소홀
- 2) 발음 전문 교사의 부족
- 3) 한국어 발음 교사의 중국어 구사 능력 부족
- 4) 교사 발음 시범 오류

동시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이 학습 태도에 반영돼 발음 오류를 조성하여 나타난 현상으로써;

- 1) 대체 음운의 사용 여부(주음부호, 로마음 등)
- 2) 발음 기호 작성 능력 및 구절의 단락 나누기 습관 여부
- 3) 발음은 중요한 학문이 아니라 생각함. 음운학 이론에 대한 부담감

¹³ 정윤도(2009.2), 한국어 표준발음 교습법, 期刊「韓國研究」第 20 期, p.50-270

- 4) 자모 발음 학습 후 발음은 다 배웠다고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
- 5) 발음이 좋고 나쁨은 천성이라 여기는 소극적인 자신감과 연습 동기
-등 이상의 특히 인위적인 요인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 환경의 시정을 통해 우선적인 개선을 요청해 본다.

3. 한국어 자음/ㄹ/의 자질과 발음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해서는 한국과 해외 지역을 막론하고 한국 문교부가 고시한 「표준어발음법」 규정에 입각하여 발음함을 기조로 삼고 있는 바로, 논문에서 고찰하고 있는 자음/ㄹ/과 관련된 규범적 발음 규칙과 용례 역시 이에 준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전공자인 대만인에게 이들 규정을 어떻게 쉽고 조리있게 전달하여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모색도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이는 그 어떠한 학문일지라도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문이 갖는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토대로 원리를 이해하는 교육이 실천되어야만, 그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탐구와 응용도 할 줄 아는 능력이 배양되리라 믿는다. 이에 자음/ㄹ/의 발음 교육에 임해서도, 음운(음성)에서 비롯된 자음/ㄹ/의 변별적 자질에 근거를 둔 음운변화 현상의 환경 및 규율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밝혀 조리있게 설명하고, 상관된 예시를 들어 실지로 발음하며 체험해 보도록 진행한다. 동시 학습자의 올바른 음가 정립과 오류 수정 연습 등의 교수법 모색에 있어서는, 독특한 유음인 자음/ㄹ/이 여러 음운 현상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환경이 비단 독립된 단어인 명사뿐만이 아니라, 어구와 어절에서의 용언의 어미 활용 및 조사 선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 주의하여, 문구와 문장을 통해 발음 연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발음 교과 과정의 최종 목표는 학습자들 스스로 올바른 음운 기준인 [발음기호]를 작성하여 그에 준해 음가를 발음하는 자율 능력을 배양하게 하는데 있다.

3.1 /ㄹ/의 변별적 음운 자질과 음가

말소리인 음성에는, 폐에서 나오는 날숨소리로 목청을 진동해 내는 소리인 유성음과 그렇지 않은 무성음이 있다. 유성음 중 혀가 입안의 어느 곳에서도 마찰이나 폐쇄됨이 없이 발음되는 것을 모음이라하고, 그밖의 유성음과 모든 무성음을 자음이라 한다. 여기서는 이런 ‘유성음과 무성음’, ‘모음과 자음’의 개념에 입각해 /ㄹ/이 다른 음운들과 구별되는 특질을 살펴보고 그를 토대로 그음가를 재확인해 본다.

3.1.1 닿소리 자음

한국어에서 음운/ㄹ/은 자음에 속한다. 음운의 생성과 관련하여 조음적인 관점에서 말소리는 [자음성]과 [음절성]¹⁴ 자질 유무에 근거해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하는 바로써 이는 닿소리와 홀소리의 개념과도 통한다. 그 중 자음은 다시 유사한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발성 유형의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 IPA 자음(폐에 의한 발동) 기호표¹⁵에 의하면, 자음의 조음 위치를 입술에서 가까운 위치부터 성문 쪽 순으로¹⁶ 11 개 부류로 분류하였는 바로, 그 중 한국어의 음운/ㄹ/은 /ㄴ, ㄷ, ㄹ, ㄲ, ㄸ, ㅌ/ 등과 함께 혀 끝과 잇몸 사이에서 조음되는 치경자음에 속한다.

조음 방법에 있어서는, 폐에서 나오는 기류가 구강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 한다. 조음시 기류의 방해 정도에 따른 7 가지 부류 가운데서¹⁷ /ㄹ/은 [+설정성]자질의 조음 위치에서 아주 짧은 다막음 장애 현상이 이루어져 소리나는 탄설음인 동시, 다른 조음 방법으로 구강 안쪽 혀 양측과 양볼 사이의 통로를 열어 난류를 발생하지 않은 채 조음하는 [+설측성]자질에 근거해 설측음에도 귀속한다. 이러한 변이음의 특질은 초성과 종성 자음에서 각기 달리 나타나며, 한국어의 다른 자음들처럼 홀로 소리내지 못하고 반드시 모음과의 배합을 통해서만 그 소리값이 실현된다. 이러한 바로 한국어 /ㄹ/은 조음적인 관점에서 [+자음성]、[+설정성]、[+설측성]、[-음절성] 등 자질을 갖는 닿소리 자음이다.

3.1.2 환경에 따른 변이음

한국어 어휘의 실제 발음에 있어서 /ㄹ/은 초성과 종성에 있어서 각기 다른 조음 방법으로 나는 변이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흔히 같은 소리값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교사가 한국인일 경우는 스스로 경계하여 변이음 /ㄹ/의 음가의 시범에 임해 용래의 분류와 발성 비교의 반복을 통해 변이음의 차이를 인지시킨다.

조음에 있어서 자음/ㄹ/은, 초성의 위치에서는 혀끝을 치경의 바로 뒷부분에 살짝 두들기듯이 닿았다가 내는 탄설음이고, 종성의 위치에서는 초성의 조음시보다 상당히 넓은 혀의 앞부분을 치경 뒷부분에 접근하여 혀 양측을 통해 기류를 흘려 모음처럼 구강 내 날숨식 공명 소리를 내는 설측유음이다. 이때 비강을 통한 비음의 공명과의 구별을 위해선 손으로

¹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신지영, 차재은(2008), p.95-99, 자음성(consonantal)과 성절성(syllabic)정의를 참조할 것.

¹⁵ 동상주 p.44, 그림 3.4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1993), Consonants(pulmonic).

¹⁶ 동상주, p.44-47, 양순-순치-치-치경-후치경-권설-경구개-연구개-구개수-인두-성문,

¹⁷ 동상주, 폐쇄음(plosive)-비음(nasal)-전동음(trill)-탄설음(tap or flap)-마찰음(fricative)-설측마찰음(lateral fricative)-접근음(approximant)-설측접근음(lateral approximant).

코를 움켜잡은 채 비음 공명 실현 여부를 통해 비교 확인해 주도록 한다.

그리고 자음/ㄹ/은 다른 자음과 달리 비교적 사용상 위치적 제약을 받고 있음도 알린다. 고유어와 한자어에서는 어중과 어말에서만 조음됨을 허용하는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반해, 서구 외래어 표기와 발음을 위해서는 어두에서도 조음됨을 허용하고 있음도 주지시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이때 한자어와 외래어(영어 등)의 예시를 통해 가시화시켜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가. /달/[dal]에서처럼 음절 말음 종성 자음으로 쓰는 /ㄹ/은, 설측음으로서 그 음가는 [l]이다.

나. /다리/[dari]에서처럼 어중 초성에 쓰이는 /ㄹ/은 경구개 탄설음으로 그 음가는 [r]이 된다.

다. /발안/[바란 baran]에서처럼 모음 사이 혹은 /달리/[dally]에서처럼 모음 사이에서 겹으로 나타나는 /ㄹ+ㄹ/의 음가는, [-r-] 혹은 [-ll-]이 될 수 있다.

라. /팔호/[kwarho]에서 처럼/ㄹ/ 직후에 자음/ㅎ/이 올 때의 음가는 [r]이 된다.

이처럼 다른 음절 위치와 조음 방법에서 생성된 변이음 /ㄹ/ 음가의 비교는 추상적 이론 설명과 청각적에 의한 감지보다는 이하처럼 어휘 예시를 들어 그 위치와 음가를 가시화된 확인을 통해 기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한 음운 한 음가”, ‘한 음절 한 음절음’ 개념이 깊게 배인 한국인 교사일수록 초성과 종성 /ㄹ/의 변이음 구분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5>처럼 한국인 교사가 영어 발음에서 개별 음운 [r]과 [l], 두 음을 동일한 음가로 오인하여 /ㄹ/로 대체해 발음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경우와 같다.

<표 5> 영어 어휘 중 /r/과 /l/의 한국어 표기

어두초성/ㄹ/		어중/ㄹ ㄹ/		어말종성/ㄹ/	
light [laɪt]	라이트	lilac [ˈlaɪlək]	라일락	litter [ˈlɪtə]	리틀
right [raɪt]	라이트	roller [ˈrɒlə]	롤러	rail [reɪl]	레일

<표 6> 위치에 따른 변이음 /ㄹ/의 음가

유형	음 운 환 경		예 시	
	위치	前音節 + 後音節	단어	음가
1	어말 종성	모음+ ㄹ	달[dal]	[l]
2	어중 초성	+ 모음 + ㄹ+ 모음	다리[dari]	[r]
3	모음 사이	모음+ ㄹ + ㄹ+ 모음	달리[dally]	[ll]
4	ㄹ의 연음	-ㄹ + 모음	발안[바란 baran]	[r]
5	비음의 유음화	-ㄴ + ㄹ-	신라[실라 silla]	[ll]
6	자음/ㅎ/의 앞	-ㄹ + ㅎ-	괄호[kwarho]	[r]

그리고 부연해 상기 <표 6>의 자음/ㄹ/ 변이음 조성 6 유형 중 중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대만인 학습자들에게는 특히 유형 2,3,4 환경에서는 발음 오류가 더 빈번히 발생한다. 그 주요인은 중국어 권설음의 개입과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배합에 있어서 음운의 위치와 전후 음소 배합에 따라 야기되는 음운 현상 변화를 통한 음가의 실현이 달라지기 때문이라 하겠다.

3.1.3 유음/ㄹ/의 자질

유음(流音, liquid)이란 음성학에서 쓰이는 용어로, 혀가 입 안에서 공기의 흐름을 일부 가로막아 나는 유성음을 일컫는다. 한국어 자음 중 유일한 유음인 /ㄹ/은, 음가의 실현에서 쓰이는 위치가 어중 종성일 경우 그 조음 방법은, 혀끝이 입천장의 전후 즉 치경에 닿아 조음되는 동시에, 다른 자음들과는 달리 발음시 혀의 옆부분이 열려 공기가 양볼 안쪽을 타고 흐르며 진동해 내는 소리로, 부분적으로 모음처럼 [+공명성][+지속성] 자질에 근거해 내어 설측유음소리([l])에 속한다.

그러므로 중국어 학습자들이 중국어의 탄설음 부재에도 불구하고 치경 설측음/ㄹ(l)/[l]과 권설마찰음/ㄹ(r)/[r]을 초성 자음/ㄹ/에; 평순접근음 /ㄹ(r)/[ər]을 종성 설측음에 대체해 발음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음향적 관점에서 유음/ㄹ/의 특질은 구강에서의 기류의 흐름이 거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자음이면서도 모음처럼 울리는 소리으로써 [+공명성] [+지속성] 자질을 갖고 있는 유성음이다. 비록 중국어의 /ㄹ[ər]도 이런 [+공명성]자질에 기인해 일부 용례에서는 모음처럼 한 음절의 주음(主音)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¹⁸ 한국어에서의 유음/ㄹ/은 [+자음성]자질에 충실한 닿소리로서 [-음절성]자질의 제약을 받아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 바로 이런 한국어 /ㄹ/의 [-음절성]자질로 말미암아, 상기 2-2-3 단원에서 중국어 학습자가 권설음의 개입으로 내는 /ㄹ[ər]식 발음은 한국어에서는 오류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사는 유음 /ㄹ/의 [+공명성], [-음절성] 자질을 인지시키는 것과 부연해 중국어 학습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한국어의 큰 특질이 있다. 바로 ‘한 글자 한 음절음’, ‘두 글자 두 음절음’ 식의 음절음 개념이다. 위의 설명처럼 권설음 개입으로 인한 그릇된 발음이라 간주하는 발음의 예시를 들어 가식화시켜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고 확인시켜 본다.

(3) 가. 그리고[그리고O]; [그~을리고X] → [글리고X]

나. 달아나다[다라나다O]; [다~알라나다X] → [달라나다X]

즉 한국어에서는 불규칙용언 활용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시 (3-가)처럼 6 개의 음운으로 형성된 단어에 7-8 개 음운식 발음이나 3 글자에 4 음절식 발음하는 경우나, 혹 (3-나)처럼 8 개 음운으로 형성된 단어를 9-10 개 음운으로 발음하거나 4 글자에 5 음절식 발음은 허용치 않음도 강조해야 한다. 이는 종성 표기에서 겹자음을 쓰나 대표음으로 발음토록 하는 연유와도 같다.

¹⁸ '아버지'를 뜻하는 영어 'father' [fɑːðə]의 /r/[r],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영어 'rattle' [rætl]의 /l/[l]은 모두 모음처럼 음절의 주음을 이룰 수 있다.

3.1.4 약한 공명음 /ㄹ/의 모음성 자질

공명음(Sonorant)이란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성대, 곧 목청을 울리면서 입 안에서 거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로 바로 유성음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한국어 음운 중 유성음에 속하는 것으로는 모음군과 비음군 자음과 유음/ㄹ/이 있다. 특히 유음/ㄹ/의 공명도는 비음보다도 낮고 길게 지속되어 발음시 소리의 정확성이나 귀에 들어오는 정도도 약하여 모음에 가까운 특질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공명성][+지속성] 자질에 기인한 모음성으로 인해 유음/ㄹ/은 어휘의 문법적 형태소와의 결합에서 모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함은 체언 및 용언활용 어휘에서 두 유음 /ㄹㄹ/이 연이어 [ㄹㄹ]로 발음되는 것을 허용하는 양상으로 실현된다. 그 연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설측음/ㄹ/의 자질이 모음과 유사하여 원래 뒷자음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되는 매개모음이 무용해져 탈락된다고 설명되어지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4) 가. /ㄹ/로 끝나는 체언이나 용언 뒤의 조사나 어미 사용에 있어 매개모음이 탈락됨.

- a. 지하철+으로→지하철(으)로→지하철로
- b. 놀+은→놀(으)ㄴ→논, 놀+을→놀+(으)ㄹ→놀[놀]

나. 용언의 활용에서의 유음/ㄹ/ 첨가 현상

- a. 누르+어→눌러, 고르+어→골라, 오르+어→올라, 이르+어→일러(早)¹⁹
- b. 이르+어→이르러(到)

다. 체언 및 용언활용, 부사 어휘의 어중 종성과 초성 사이에 두 자음 /ㄹㄹ/이 연이어 오고 연속 발음되는 것을 허용함

- a. 걸레, 벌레, 빨래, 술래, 물레
- b. 놀러, 일러, 달라, 골라
- c. 알록달록, 출렁출렁, 물렁물렁, 살랑살랑

라. 파생어 복합어 및 용언의 활용에서의 유음/ㄹ/ 탈락

- a. 술+나무→소나무, 버들+나무→버드나무, 딸+님→따님, 바늘+질→바느질, 불+삼→부삼
- b. 날+니→나니, 알+는→아는, 살+쉽니다→사쉽니다

이상의 예시와 관련해 부연하면;

1. (4-가-a) 예시처럼, 약한 소리 /ㄹ/음은 체언 및 용언활용 어휘의 전후 종성과 초성 사이에서 연달아 두 유음 /ㄹㄹ/이 오는 것을 허용한다.
2. (4-가-b) 예시처럼, ㄹ용언 뒤에 원래의 매개모음 어미가 무용하여 탈락되면서 일시적으로 자음군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놀-’에 ‘-은, -을, -음, -읍시다’가 붙으면 ‘놀ㄴ, 놀ㄹ, 놀ㄱ, 놀ㅂ씨다’가 되어 ‘ㄹㄴ, ㄹㄹ, ㄹㄱ, ㄹㅂ’과 같은 자음군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다시 ‘ㄹ’이 탈락하여²⁰ ‘논, 놀, 놀[눔], 놀시다[눔씨다]’가 된다.

¹⁹ 한글맞춤법통일안 제 4 절 변격 용언의 내용을 참고할 것

3. (4-나-a,b)의 예시처럼, 용언의 어말 모음/ㅡ/에 모음 어미가 연이을 때 모음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ㅡ/가 탈락되면서 /ㄹ/이 첨가된다.
4. (4-라-a,b)는 유음/ㄹ/ 탈락 현상에 있어서 파생어와 복합어에서 혹은 용언 활용에서 어말에 위치한 /ㄹ/이 /ㄴ,ㄷ,ㅌ/등의 ‘[+설정성]’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이다.
5. (4-다)에서처럼, 한국어 모든 자음이 초성과 중성에서 두루 쓰임을 원칙으로 하나, 한자어 어휘에서는 예외로 두음법칙을 적용해 첫음절 초성에 /ㄹ/이 오는 것을 꺼림에도 불구하고, ‘걸레, 벌레, 빨래’ 등과 같은 체언 및 부분 용언 활용 어휘의 전후 어중 중성과 초성 사이에 두 유음/ㄹㄹ/이 연달아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3.2 한국어 음운/ㄹ/의 발음 규칙

음운(음소)은 환경에 따라 표기와 다르게 바뀌거나 없어지는 등의 음운 변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어와 달리, 음소문자인 한글로 표기하는 한국어에서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인 자모가 하나만 바뀌어도 말의 뜻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문제는 자음 /ㄹ/과 관련해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조리있고 쉽게 가르쳐, 학습자 스스로가 변이음 /ㄹ/의 음가를 확인하여 다르게 조음해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학습 목표를 두고 실천하는 발음 교육이 되어겠다. 자음/ㄹ/에 관한 음운 현상은 그 유형 분류에 따라,²¹ 음운 동화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3.2.1 음운 현상의 유형에 따라

이에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자음/ㄹ/과 관련한 음운 현상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 가를 예시를 들어 정리해 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자음/ㄹ/과 관련한 음운 현상의 유형

유형	음운 현상 및 예시
1.대치	1) 비음화-종로[종노], 담력[담녁] (유음/ㄹ/의 비음화) 2) 비음화-독립[동닙] (①장애음/ㄱ/의 비음화, ②유음/ㄹ/의 비음화) 3) 유음화-신라[실라], 찰나[찰라] (비음/ㄴ/의 유음화) 4) 경음화-할 수[할쑤], 할 줄[할쥬], 굶이[골씨], 발전(發展)[발쩐]
2.탈락	1) 겹자음의 대표음-읽고[일꼬], 늙다[넬:파], 여덟[여덜], 굶[골], 훔다[홀파], 싫다[실타], 밟히다[발피다] 2) 유음탈락-/딸+ 님/→/따님/, /바늘+ 질/→/바느질/ (유음탈락)

²⁰ 동상주

²¹ 신호철(2003.6), 한국어 유음의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중국어 모어 화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 연구, p.254-,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의 유형」

	3) 두음탈락-/림시(臨時)/→/임시/ (두음/ㄹ/의 탈락) 4) /ㄹ/탈락-/살+ ㅂ니다/→/삽니다/ (ㄹ불규칙용언활용의 /ㄹ/탈락) 5) /ㄹ/탈락-/누르+ 어/→/눌러/ (ㄹ불규칙활용의 /ㄹ/모음탈락) 6) /으/탈락-/전철+ (으)로/→/전철로/ (매개모음의 탈락)
3.첨가	1) /ㄴ/첨가-/술+ ㅅ/[술닙→술립], /서울+ ㅅ/[서울닙→서울립] 2) /ㄹ/첨가-/할+ 일/[할릴], /물+ ㅅ/[물락], /1 연대/[일련대] 3) /ㄹ/첨가-/듣+ 어/→ /들어/[드러] (ㄴ불규칙용언활용의 /ㄹ/첨가) 4) /ㄹ/첨가-/고르+ 아/→/골라/ (ㄹ불규칙용언활용의 /ㄹ/자음첨가) 5) /ㄹ/첨가-/이르+ 어(到)/→/이르러/ (ㄹ불규칙용언활용의 /ㄹ/음첨가)
4.축약	1) 유기음(격음)화-밝히다[발키다], 엮혀[얼켜], 넓히다[넌피다] 활아[할타], 싫다[싫타]

3.2.2 동화의 분류에 따라

또한 한국어에서의 음운 현상은 동화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 바로, 자음/ㄹ/과 관련된 동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3.2.2.1 동화의 방향에 따라

- 1) 순행동화: 앞소리 음운이 뒷소리 음운에 영향을 준 경우
/C1+/ /C2/→[C1]+ [C1]: /칼날/→[칼-랄]
- 2) 역행동화: 뒷소리 음운이 앞소리 음운 변화에 영향을 준 경우
/C1+/ /C2/→[C2]+ [C2]: /신라(新羅)/→[실라]
- 3) 상호동화: 동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아 음운이 변한 경우
/C1+/ /C2/→[C3]+ [C4]: /독립(獨立)/→[동닙]

3.2.2.2 동화 정도에 따라

- 1) 완전동화: 전후 두 음운의 소리가 완전히 같아지는 경우
/C1+/ /C2/→[C2]+ [C2]: /신라/→[실라]
- 2) 불완전동화: 전후 두 소리의 한소리가 유사한 자질의 다른 음운으로 변화되는 경우
/C1+/ /C2/→[C1]+ [C1']: /심리/→[심니]
/C1+/ /C2/→[C3']+[C3'']: /독립/→[동닙]

이상처럼 자음/ㄹ/과 관련한 음운 현상은 유형별에서 도치²²를 제외한 대치, 탈락, 첨가 등 전반에 걸쳐 두루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동화의 방향에 따라 살펴보면 순행, 역행, 상호 등의 동화가 모두 일어나고 있다.

²² 동상주 신호철(2003.6), 도치: 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음운현상.

3.3 유음/ㄹ/에 관한 음운현상의 요인

/ㄹ/이 음운동화에 끼치는 영향은 이상에서 논한 것보다도 복잡한 양상을 보이지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질의 제약에 우선해 상호 작용해 영향받고 있음도 알 수 있다.

3.3.1 음운 분포의 제약

한국어에서 음절을 형성하는 음운의 분포 제약과 관련해, 유음 /ㄹ/은 단어의 어두 및 음절 초에서 올 수 없다는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유음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 /ㄹ/이 올 때도 발음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아, /ㄹ/이 비음[ㄴ]으로 바뀌는 음운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전자의 두음법칙이라 불리는 예시들과 후자의 설측음의 비음화라 불리는 예시들에서 볼 수 있다.

(5) 가. 두음법칙

a. /ㄹ/ 탈락: 료리→요리, 리익→이익, 력사→역사

b. /ㄹ/비음화: 로인→노인, 로동자→노동자, 래일→내일

나. 유음/ㄹ/의 비음화

a. /ㄱ/뒤의 /ㄹ/이 [ㄴ]으로 바뀐 예: 금리[금니], 담론[담논], 감로[감노]

b. /ㅇ/뒤의 /ㄹ/이 [ㄴ]으로 바뀐 예: 종로[종노], 공로[공노], 등록[등녹],

교통량 [교통냥], 대통령[대통령]

c. /ㄴ/뒤의 /ㄹ/이 [ㄴ]으로 바뀐 예: 선릉[선능]

3.3.2 자음 강도에 따른 음소 배열의 제약 여부와 관련해

그 내용은 일반 유음과 관련되는 음운현상에서 보이는 규율성 중에서 자음 강도와 관련해 비롯된 것이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는 일부 학계의 의견으로, “한국어에서 연속하는 두 자음 간의 음소 배열은 자음 강도와 관련해서 제약받고 있다”.²³라는 견해를 주목해 근거해 본다. 이는 특히 아직 추상적으로 한국어 음가를 인지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장애음의 비음화” 및 “비음의 유음화(설측음)” “유음의 비음화” 등 유음과 관련한 발음 규칙의 결과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좀더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게 음운론적 근거 제공을 인증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 참고 가치 여부를 시험해 보고자 하였다.

경음화나 비음화, 그리고 유음화 등을 통하여 볼 때 한국어의 공명도로 표현된 자음 강도는 아래<표 8>과 같으며, 그에 따른 연속하는 두 자음 C1C2는 다음과 같은 음소배열제약²⁴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는 바를 참고해 유음과 관련한 음운변화가 일어나는 단어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²³ 허용(2007), 한국어 ‘ㄹ’모음의 음운론적 실제 연구, p243-244. 이병근(1979) 이후 여러 연구(김차균, 허용, 김성화, 오정란 등)를 통해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다.

²⁴ 동상주, 허용(2007), 한국어 음소배열제약(phontactic constraints) p243-244 내용 참조.

유음/ㄹ/과 관련해 전후 두 자음의 강도를 같도록 절충해 산출한 결과(발음기호)는 맞아들어 갔지만, 아래 <표 8>의 인증 시도와 관련한 예시(7)의 7-가/7-라①/7-마①의 장애음의 비음화 및 7-나/7-다/의 비음의 유음화(설측음화), 7-라②/7-마②/7-사의 유음(설측음)의 비음화 등 음운 현상 상호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장래 더욱 심도있는 고찰과 연구로 입증되어야 하겠으므로, 새로운 연구 과제로 남기며 학계 선진들의 조언을 구해본다.

(6) 가. 자음강도

유음 < 비음 < 장애음(평음) < 경음, 격음

나. C1 과 C2 의 음소배열제약

a. C2 가 C1 보다 자음 강도가 약하지 않아야 한다. ($C1 \leq C2$)

b. 단, C1 과 C2 가 모두 장애음일 경우에는 C2 가 C1 보다 반드시 강해야 한다.

<표 8> 자음 강도와 /ㄹ/의 음운동화 관련 여부

모음	약한 공명도		←자음 강도→		강한 공명도	
	유음	<비음	<장애음		<격음과	경음
	ㄹ	ㄴ, ㄹ, ㄹ	ㄱ, ㄷ, ㅌ, ㅊ, ㅍ, ㅎ		ㅈ, ㅊ, ㅊ	ㄱ, ㄷ, ㅌ, ㅊ, ㅍ, ㅎ

(7) 자음 강세도와 /ㄹ/관련 음운동화의 관계

예시	$C1 \leq C2$	조건:음소배열규칙
가. 국물 [국물]	[ㄱ] > [ㄹ] [ㅇ] = [ㄹ]	환경:음소 배열 제약에 어긋남 절충:동일 음소 강도로 절충-(장애음의 비음화 현상)
나. 신라 [실라]	[ㄴ] > [ㄹ] [ㄹ] = [ㄹ]	환경:음소 배열 제약에 어긋남 절충:동일 음소 강도로 절충-비음의 유음화(설측음화)
다. 칼날 [칼랄]	[ㄹ] < [ㄴ] [ㄹ] = [ㄹ]	환경:음소 배열 제약에 충족하나 설정성 제약을 받음 절충:동일 음소 강도로 절충-비음의 유음화(설측음화)
라. 국립 [국립]	[ㄱ] > [ㄹ] ①[ㅇ] = ②[ㄴ]	환경:음소 배열 제약에 어긋남 절충:동일 음소강도로 절충-①장애음의 비음화 ②유음(설측음)의 비음화
마. 금리 [금니]	[ㄹ] > [ㄹ] [ㄹ] = [ㄴ]	환경:음소 배열 제약에 어긋남 절충:동일 음소 강도로 절충-유음(설측음)의 비음화
바. 종로 [종노]	[ㅇ] > [ㄹ] [ㅇ] = [ㄴ]	환경:음소 배열 제약에 어긋남 절충:동일 음소 강도로 절충-비음(설측음)의 비음화
사. 공권력 [공편력]	[ㄴ] > [ㄹ] [ㄴ] = [ㄴ]	환경:음소 배열 제약에 어긋남 절충:동일 음소 강도로 절충-유음(설측음)의 비음화

이상 <표 8>에 의거한 예시(7)의 분석을 통해 얻은 바를 정리해보면:

1. 일반적으로 한국어 음소배열의 충족조건에서 어긋나면 자음동화현상이

일어난다.

2. 한국어의 모든 자모는 날숨소리인 까닭에, 어휘 뒤쪽 음운으로 갈수록 강도(공명도)가 작아지는 어말 자음군의 배열을 선호한다.
3. 대체적인 한국어의 음운현상은 한 단어나 어구에서 연음화 혹 장애음(대표음)→경음화 혹 격음화→비음화→유음화적 순차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연유는 한국어의 모든 자모가 날숨 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소리값에 해당되어 뒤 쪽 음운으로 갈수록 강도가 약해지기 마련으로 이는 자연스런 현상에 속한다. 이는 단어 ‘발굴’[발굴]의 경우처럼 연이은 자음의 배열에 있어서 ‘유음+장애음’ 순서는 한국어 음소 배열의 충족조건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자음동화를 겪지 않는다.
4. 그러나 예시(7-다) ‘칼날’[칼랄]의 경우는 ‘유음+비음’은 음소배열제약에 충족되나 비음 ‘ㄴ’의 설정성 영향으로 자음동화를 겪는다.
5. 반해, 예시(7-라) ‘국립’[궁닙]의 경우처럼 ‘장애음+유음’은 한국어 음소배열의 충족조건에 어긋나므로 자음동화를 일으키게 되어, 양자간의 강도를 절충하는 방법으로 원래 음운과 유사한 같은 공명도의 비음을 선택하게 된다.
6. 특히 /ㄷ/의 모음성에 따른 영향은 발음상 어휘의 음운 변화를 야기시킬뿐더러 조사 설정과 용언 활용에서의 문법적 형태소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다. 이는 마치 단어 ‘종+은’의 발음에서 [조ㅎ은]→[조흔-조흔]→[조은]에서처럼 중성 자음/ㅎ/이 뒤에 오는 음절의 모음에 연음되는 과정에서 동시 약화되어 탈락되는 현상과도 동화의 방향은 다르나 기인한 원리는 유사한데, 이도 /ㅎ/이 강세가 낮은 약한음이기 때문이다.

4. 맺는 말

본 논문은 해외에서 실행하는 외국인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발음 교육과 관련해, 특히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함에, 보다 효과적인 교수법을 모색하기 위한 제반 고찰의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교수법의 모색은 반드시 현실 문제 파악에 입각해 과제 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아울러 다른 하나는 불변의 원리로 학문의 기초를 착실히 닦아나가도록 지도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에 대만인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ㄷ/발음 오류를 조성하는 조음적, 교육 환경적 요인으로 부터 문제점을 탐구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건의해 보았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 발음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학문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음운론 교육의 강화는 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한국어 자음/ㄷ/의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에서 기인된 변별적 자질을 이해해 보았으며, 아울러 상관된 예시 및 용례를 통해 그 변이음적 음가의 식별과 중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만 전공자가 사용하는 기존 언어와 처한 교육 환경에서 비롯된 한계성을 현실로 받아들여 그 요인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발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가 해야하는 직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해 보았다.

우선, 보다 착실한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어 닿소리 유음 /ㄹ/은 대만 학습자에게 유사음으로 혼동하게 하는 중국어 음운(주음) /ㄌ, ㄹ, ㄴ/과는 부류 자질에 있어서의 [+자음성], [-음절성], [+공명성], [+지속성]과 자음 조음 방법에 있어서의 [+설측성], 조음 위치에 있어서의 [+설정성] 등 변별적 자질의 특성에 근거해 비교하여, 중국어에는 없는 다른 별개의 음운임을 강조해 대체 음운의 사용을 지양하고 새로이 한국어식 음가를 정립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동시 본 논문이 대만인 전공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음/ㄹ/관련 발음 교수법 개선에 취지를 두고 있는 것인 만큼, 한국어가 갖는 표음문자 및 첨가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의 의사 표현 전달은 문법적 형태소에 따른 단락 나누기와 음운 현상이 주는 영향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문장 읽기를 통한 발음 연습으로써, 음운의 환경에 따라 다른 /ㄹ/의 변이음을 식별하여 올바르게 발음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건의해 본다.

아울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있어서도, 단순히 음의 모방이 아닌 그 음운의 음가의 정립을 위한 발음 교육이 실천돼야 한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한글 자모의 변별적 자질을 터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근본이자 첩경이겠다. 그리고 실제 발음 지도에 임하는 교사는 서로 다른 음운과 음소의 대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초분절을 자모 음가 발성으로 부터 점차적인 단어, 어구, 어절과 문장 읽기를 통해서 자음 /ㄹ/이 각기 다른 음운의 환경에서 실현되는 규범적, 수의적 음가를 제시해 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반복된 대조와 비교를 통해 올바른 발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연마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과 교재를 설계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비록 외국인 학습자라 할지라도 대학 한국어학과 전공자에게 실행하는 교육인 만큼, 학습자 스스로 어휘의 음운을 도출하여 그 음운의 조음 방식에 준해 올바른 음가를 발음하도록 하는 일관성 있는 지도를 통해, 장래 실무적인 통역 및 한국어 교사 등의 역할 실행에서도 미흡하지 않도록 장기 인재 양성의 교육 목표에 입각하여 실천해 나가야 하겠다.

참고문헌

- 고석주 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2004
- 구현옥, 「국어 음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1999
- 김병운, 「中國語圈 學習者를 위한 韓國語敎育研究」, 한국문화사, 2009
- 김승곤, 「음성학」, 정음사, 1983
- 김영만,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역락, 2005
- 김차균, 「우리말의 음운」, 태학사, 1993
- 남성우 외, 「언어교수이론과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사, 2006
- 리의도, 「리의도 교수의 이야기 한글 맞춤법」, 석필출판사, 1999
- 박영목, 민현식, 김종철 외, 「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2008
- 박종덕,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음운론」, 박이정 출판사, 2008
- 석주연, 「한국어 교사와 한국어 교육」, 박이정, 2008
- 신지영,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4
- 신지영 외,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2008
- 이기문 외, 「국어음운론」, 학연사, 1984
- 이승녕, 「국어학연구」, 형설출판사, 1978
- 이병건, 「현대한국어의 생성 음운론」, 일지사, 1976
- 이현복, 「우리말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1989
- 이호영, 「국어음성학」, 태학사, 1996
- 정윤도, 「한국어 발음」, 중국문화대학교 교재, 2007
- 허 용,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1985
- 이희승 감수,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1995
- 동아출판사편집부, 「동아 새 韓漢辭典」, 두산동아출판사, 1998
- 「現代中韓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中國語大辭典編纂室, 1989
- 최영애, 김용옥, 『중국어 표기법』, 위키백과